

‘미스터 제로’ 성영탁, KIA 불펜의 새로운 믿을맨



8경기 10이닝 무실점…철벽 투구
줄부상·불펜 난조 속 보물 발견
부산고 출신 10라운드 96순위
추격조 넘어 필승조 진입 기대



KIA 타이거즈가 주전들의 줄부상 속에서도 뜻밖의 ‘보물’을 발견했다. 2군에서 콜업된 투수 성영탁(21)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불안한 불펜진 속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영탁은 10일 오전 현재 1군 8경기 10이닝 무실점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20일 KT전에서 1군 데뷔전을 치른 이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투구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미스터 제로’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KIA 타이거즈 성영탁이 지난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의 홈 경기에서 역투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특히 최근 KIA가 불펜 난조와 주축 이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성영탁의 안정감 있는 피칭이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KIA는 올 시즌 불펜이 패한 경기만 13경기, 동점·역전 허용도 14차례에 달할 정도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성영탁은 ‘대체자원’ 이상의 가치를 입증하며 필승조 자원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앞서 성영탁은 지난달 20일 정식 선수로 전환한 후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데뷔전을 가졌다. 이날 성영탁은 6회말 마운드에 올라 주자 2명을 뜬공과 땅볼로 처리했다. 이어 안타와 볼넷을 내주며 위기 상황에 몰렸지만, KT 3번 타자 안현민을 상대로 커브를 던져 땅볼로 잡아냈다.

그는 지난달 24일 삼성전과 28일 키움전에서도 각각 0.2이닝, 0.1이닝 무실점 호투를 기록했다.

성영탁의 호투가 이어지자 이범호 감독은 지난달 30일 KT전부터 그를 승부처인 상황에서 투입하기 시작했고, 성영탁은 6회말 등판해 2이닝 무실점 호투로 화답했다.

두산과 한화를 상대로 한 지난주 경기에서는 팀의 연속 위닝 시리즈 달성에 기여했다. 지난 3일 두산전에서는 6회말 두 명의 주자를 뜬공과 스트라이크 낚

아웃으로 잡아낸 뒤 유격수의 실책으로 주자를 내보냈지만 흔들리지 않는 투구를 펼쳤고, 4일 두산전에서도 6회말 삼자범퇴를 성공시키며 위닝 시리즈 조기에 확정에 기여했다.

지난 7일 한화전에서도 0.1이닝 무실점 투구를 선보인 그는 8일 한화전에서는 2.1이닝 5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간 양현종의 바톤을 이어받아 한화 강타선을 상대로 2.2이닝 동안 무실점 역투를 펼쳐 팀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부산고 출신의 우완 사이드암 투수인 성영탁은 2024 신인드래프트 10라운드 96순위로 KIA에 입단했다. 프로 선수로 데뷔하기 전 큰 주목을 받던 선수는 아니었지만, 입단 후 꾸준히 성장하더니 1군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잦은 볼넷으로 흔들리는 KIA 불펜진 사이에서 움직임 좋은 투심과 대담한 투구를 앞세워 이범호 감독의 눈도장을 받고 있다.

이같은 활약에 팬들은 그를 ‘미스터 제로’라 부르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에선 벌써부터 추격조를 넘어 필승조 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시체육회,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 참가

내일부터 이틀간 대구서
배구 등 4개 종목 120여 명

광주광역시체육회는 12일부터 이틀간 대구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광주-대구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류대회는 광주와 대구가 지난 2013년 체결한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토대로 격년제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 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 교류행사다.

올해는 대구시체육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광주에서는 배구·검도·족구·볼링 등 4개 종목 120여 명의 선수 및 동호인들이 참가해 지역 간 화합과 우정을 다진다.

다.

광주 선수단은 12일 대구스포츠타운훈련센터에 도착해 환영식과 문화탐방,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13일에는 대구 전역의 경기장에서 종목별 경기를 치른다.

전갑수광주체육회장은 “달빛동맹 스포츠교류대회가 광주와 대구 두 도시 간의 신뢰와 우정을 다지는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이 교류 행사가 전국 지자체 교류의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도 대구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전남 체육인 17명, 체육회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박용규·김홍식씨 위원장 임명
중앙 체육 행정 참여 확대 기대

전남 체육계 인사들이 대한체육회 각종 위원회에 대거 위촉되며 전남 체육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10일 전라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최근 구성한 각종 위원회에 전남 출신 또는 소속 체육인 17명이 위원장 및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역 체육인의 전문성과 활동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위원장 2명이 선임돼 전남 체육의 중앙 무대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클럽위원회 위원장에는 보성 벌교 출신 박용규 경기도배구협회장(전 벌교제일고 배구감독)이,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에는 함평 출신 김홍식 동신대 명예교수(전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가 각각 임명됐다.

박 위원장은 스포츠클럽 육성과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되며, 김 위원장은 체육계 인권보호 정책을 맡는다.

이외에도 △생활체육위 이병돈(강진군체육회장), 안정민(전남체육회 이사) △

경기력향상위 화순 출신 이용대(전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스포츠클럽위 무안 출신 노철민(무안군복합협회장) △홍보미디어위 해남 출신 장철호 프라임경제신문 호남본부장 △스포츠복지위 정성인 장흥군체육회장, 정병환 영광군체육회장, 문영준 전남펜싱협회장 △지방체육위 정형찬 화순군체육회장 △종목육성위 보성 출신 신정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윤병용 전남우수협회장 △전국종합체육대회위 안용준 전 전라남도체육회 이사 △스포츠영웅선정위 어성준 전남체육회 이사 △인권경영위 임다연 목포해양대 교수 △학교체육위 권형선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다양한 전남 체육인들이 전문위원으로 대거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5월 23일부터 2027년 2월 정기총회 전날까지 2년간이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이번 위촉은 전남 체육계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남 체육인들이 중앙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KIA 김도영·박찬호, 올스타전 팬투표 중간 집계 1위

최형우, 지명타자 부문 2위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 1차 중간 집계에서 KIA 타이거즈 김도영(3루수)과 박찬호(유격수)가 각 부문 선두를 달리며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다. 특히 베테랑 최형우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한화 문현빈과의 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9일 2025 KBO 올스타 팬 투표 1차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구 인기 구단 KIA는 나훈 올스타(KIA·LG·한화·NC·키움)에 속

한 가운데 3루수와 유격수 부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3루수 김도영은 48만2172표를 획득하며 키움 송성문(31만5614표)을 52.77% 차이로 크게 앞섰다. 유격수 박찬호 역시 40만2800표를 받아 2위인 NC 김주원(34만2823표)에 40% 이상 격차를 벌렸다.

최형우는 올 시즌 5월 월간 MVP에 선정되며 KBO 최다·최고령 MVP 기록을 동시에 경신한 가운데, 4년 연속 올스타 베스트12 등극을 노리고 있다. 그는 현재

지명타자 부문에서 42만1459표를 얻었으나, LG 문현빈(44만8833표)에게 근소하게 뒤처진 상태다.

한편 올해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는 폭발적인 관중 증가 추세를 반영하듯 뜨거운 참가 열기를 보이고 있다. 1차 중간 집계 결과 총 투표수가 지난해보다 7% 증가해 137만 2012표가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팬 투표는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며 2025 올스타전 베스트12는 팬 투표 70%와 선수단 투표 30%를 합산해 오는 23일 최종 발표한다.

민현기 기자



KIA 이의리, 부상 털고 돌아온다

주말 퓨처스리그 등판 예정
6월 말 1군 복귀 시점 가늠

36년 만에 KIA 타이거즈가 배출한 신인왕 이의리(사진)가 부상에서 돌아온다.

이범호 KIA 감독은 1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의리 선수가 이번주 주말부터 퓨처스리그(2군) 경기에 올라온다”고 밝혔다.

당초 이의리는 지난달부터 불펜 피칭을 시작해 지난달 27일부터 삼주전과 소프트뱅크 호크스 3군과의 교류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었으나 등판을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점검에서 팔꿈치 염증 증상이 발견됐다. 이에 약 2주간의 회복기간을 가진 뒤 13일부터 마산야구장에서 열릴 예정인 KBO 퓨처스리그 NC와의 3연전에 등판한다.

이후 6월 말까지 퓨처스리그에서 이의리의 상태를 점검한 뒤 추후 행보를 결정한다는 것이 이 감독의 설명이다.

한편 이의리는 지난해 KIA 선발진의 한 축으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시즌 초반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1군에서 말소됐다. 고작 4경기에만 출전한 뒤 왼쪽 팔꿈치 내측측부인대 재건술(토미존 수술)을 받은 그는 1년 가까이 치료와 재활에 집중한 끝에 다시 1군 마운드에 설 준비를 마쳤다.

민현기 기자

